

# 우주에서 로봇까지 첨단산업의 미래를 한눈에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오는 15일(토) 순천로봇교육과학관 일원에서 일상 속 친근 구로 다가온 로봇의 다양한 미래기술 체험을 위한 “2025 첨단페스타 & 로봇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다양한 첨단기술 콘텐츠가 어우러진 로봇축제 “첨단페스타”와 AI와 로봇기술을 융합한 문제해결능력을 겨루는 “로봇 경진대회”로 채워진다.

로봇축제인 “첨단페스타”에서는 예술과 로봇기술이 접목한 로보공연, 과학을 재미있게 설명하는 서울대 의대 출신 과학커뮤니케이터 엑소셉의 과학토크, 더불어 즐기는 로봇 달리기 이벤트로 아이들에게 신선한 경험을 제공한다. 그 외 체험행사로 AI 진로 적성검사 및 모의면접 체험, 드론 어드벤처 등 다양한 30

## 순천시, 2025 첨단페스타 & 로봇 경진대회 개최

여 가지의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관람객이 과학의 주인공이 되는 축제를 마련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KAIST(카이스트), 경상국립대, 국립순천대, 순천효산고, 한국마독고, 순천미래과학고 등 6개 학교의 관련 학과 학생들이 참여해 미래과학과 로봇기술을 주제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청소년들이 자연스럽게 미래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전망이다.

또한 행사장에서는 “로봇 경진대회”도 함께 개최된다. 올해 최초로 개최하는 경진대회는 AI 기반 로봇제어와 미션 수행을 통해 청소년들의 창의적 문제해결 능

력을 겨루고자 마련됐으며, 사전모집된 15팀 40명이 3주간의 사전교육과 예선을 통해 대회 당일 현장에서 결승 경기를 펼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첨단페스타는 로봇 경진대회를 더해 로봇에 대한 친숙함과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최신 콘텐츠로 다양하게 준비했다”며 “로봇 경진대회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교육과 기술이 융합한 미래 인재 양성을 통해 로봇친화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행사와 관련된 자세한 문은 첨단산업과(061-749-3684)로 하면 된다.

순천/정성인 기자



## 자연의 빛으로 깨어나는 곳, 강진만 생태공원 기대

### AI기술 활용 생태야간관광 조성 해양생태관광 거점 도약

남도의 끝자락, 하늘과 바다가 맞닿은 강진만.

이곳은 1,572종의 생물이 살아 숨쉬는 생태의 보고이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물결처럼 빛나는 남해안의 보석 같은 공간이다.

강진군은 오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도비 29억원을 포함해 총 58억원을 투입해 ‘강진만 생태공원 야간경관 조성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조명 설치를 넘어, 갈대밭과 수면이 어우러진 강진만의 자연경관을 감성적인 빛과 예술적 미디어로 재해석하는 프로젝트이다.

빛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살아있는 캔버스’를 구현해, 낮에는 생태 탐방지로, 밤에는 빛이 흐르는 생태 예술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지능형 친환경 조명시스템을 도입해 조명 운영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

이다.

강진군은 현재 조성중인 강진 지방정원과 연계해 정원·생태·문화가 어우러진 복합 관광벨트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낮에는 갈대밭과 정원에서 자연의 여유를 즐기고, 밤에는 생태공원의 감성적인 빛과 미디어쇼를 체험하는 ‘낮과 밤이 이어지는 체류형 관광코스’를 완성할 예정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강진만 생태공원은 자연 그 자체가 최고의 예술이다. 이번 야간경관사업을 통해 자연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빛으로 감성을 더한 새로운 생태관광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을 계기로 강진만 생태공원은 단순한 생태공간을 넘어 관광·문화·체험이 어우러진 복합 힐링 공간으로 재탄생한다. 이를 통해 비수기와 야간 관광 활성화, 지역 상권과 주민 참여 확대, 그리고 ‘자연과 문화가 공존하는 생태문화도시 강진’ 브랜드 정착이 기대된다.

강진/손경설 기자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지난 12일 화순읍 남산공원 일대에서 관내 중학생 70여명을 대상으로 ‘나는 청소년 호국 지킴이! 우리 동네 현충시설 탐방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지역 현충시설을 직접 탐방하고 호국 지킴이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우리 역사에 대한 자긍심과 호국심을 일깨우고 선열들의 희생정신을 되새기는 나라 사랑의 마음을 함양

## 화순군, ‘우리 동네 현충시설 탐방프로그램’ 운영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행사는 남산공원 충훈탑 앞 광장에서 충훈탑 참배와 묵념으로 시작되었으며, 청소년 호국 지킴이로서의 다짐을 세웠다. 이어 문화관광해설사의 안내로 충훈탑과 독립지사 지강 양한목 선생 추모탑을 있는 탐방코스를 걸으며, 현충 시설

에 담긴 역사적 의미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학생들은 “우리 동네 가까운 곳에도 이렇게 많은 역사가 담겨 있다는 것을 새롭게 알았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또한 군민회관 남산홀에서는 대한민국 6·25 참전유공자회 화순군지회 회원 3명

이 직접 참여해 전쟁 당시의 생생한 체험담과 교훈을 전하며, 학생들과 뜻깊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허선심 사회복지과장은 “청소년들이 지역의 현충 시설을 직접 체험하고 참전유공자와 소통함으로써, 나라 사랑 정신을 고취하고 세대 간 공감대를 형성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화순/김종환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 카메라 뉴스



### 진도군, ‘제11회 군민한글학교 백일장’ 성황리에 열려

진도군은 지난 11일(화)에 군청 대회의실에서 ‘제11회 군민한글학교 백일장’을 개최했다.

이날 백일장에는 군민한글학교에 참여 중인 어르신 약 140명이 참가했으며, 그동안 익힌 글씨를 선보이며 서로의 이야기에 공감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백일장은 ‘고향’과 ‘어머니’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참가자들은 자신의 삶과 기억을 글로 표현하며 웃음과 감동을 함께 나눴다.

‘대상’을 수상한 고군면 지마리의 채복례 어르신은 “나이가 많다고 배움이 멈추는 건 아니다”라며, “한글을 배우면서 세상과 더 가까워졌고, 이렇게 큰 상까지 받아 감사하다”라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진도/오재명 기자



### 구례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와 간담회

전남 구례군은 지난 10일 구례읍사무소 통합어울림센터 대강당에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생활지원사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사회 어르신이 익숙한 환경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돌봄 서비스 운영 및 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생활지원사 50여 명이 참여해 서비스 제공 과정의 어려움과 개선 사항 등을 공유했으며, 생활지원사들은 ▲어르신 안전관리 ▲돌봄 사각지대 발굴 ▲맞춤형 서비스 제공 ▲업무 효율화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구례/한정호 기자



### 영광군, 자원봉사자 할인 가맹점 현판식 개최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11월 10일 우수자원봉사자에게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자원봉사자 마일리지제 할인 가맹점인 찜의 전설(대표 이선미), ㈜신용ENG(대표 장덕인), 우정택집(대표 오현숙) 등 3곳에서 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7월부터 자원봉사자 마일리지제 할인 가맹점을 공개 모집한 결과, 현재까지 33개 업체가 가맹을 신청하였으며 순차적으로 협약 체결 및 현판식을 이어가고 있다.

자원봉사자 마일리지제는 2년간 100시간 이상 자원봉사에 참여한 우수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할인 가맹점 이용 시 업체별 협약 내용에 따라 5~1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영광/이현식 기자



## 새로운 에너지 세상

자연이 만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세상은 더 밝아지고  
우리는 더 따뜻한 미래를 꿈꾸게 됩니다.

태양의 힘으로 움직이고,  
바람이 만든 에너지로 밝게 빛나는 세상

한국전력이 깨끗한 에너지로  
새로운 에너지 세상을 열어가겠습니다

